

‘MZ세대’ 공무원이라도 농어촌은 짬...

진도군 9급 채용공고 냈지만 정원 확충 못해...고흥·완도·해남도 워라벨 중시 젊은세대 기피...생활여건·폐쇄적 문화 등 개선 시급

진도군은 최근 군 자체적으로 9급 공무원 채용 공고를 냈다. 진도군 내 토목시설직 공무원(정원 49명) 수가 13명이나 부족해 현안 업무 추진이 어려운 데 따른 조치로, 올해 초 전남도를 통한 지방공무원 공개 채용에서도 인원을 확충하지 못했다. 진도군은 오는 11월 18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미 전남도를 통해 채용 공고를 냈다가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워라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공직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전남지역 일부 시·군들이 달라진 인재 채용 시장 변화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가족이나 젊은층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이 넓어가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이 전남에서만 16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젊은 공무원 채용조차 힘들어지는 구조가 발생한다 보니 공허한 균형발전 정책 대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주거·생활환경 개선,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 정책 마련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희수 진도군수는 지난 7월 전남도청에서 열린 ‘도·시·군 상생협력간담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공무원이 부족해 군정 업무 추진이 힘들다. 제발 총원 늘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진도군원 정원은 888명으로 결원이 95명(결원율 10.6%)이나 되지만 충원이 어려워 업무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휴직(35명)과 파견(공로연수 포함 15명) 등을 제외한 나머지 45명의 결원은 채용공고를 통해서도 뽑지 못했거나, 뽑았지만 얼마 안가 공직을 떠나 발생한 것이라고 진도군은 설명했다.

진도군은 올해 3월부터 전남도에 지방공무원 103명을 뽑아달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채용 시험에서 뽑은 진도군 신규 공무원은 53명에 불과했다. 올해 치러진 9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도 75명을 뽑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작 59명에 그쳤다. 진도군은 지역제한 규정을 적용, 22개 시·군 가운데 요청한 채용 인원 대비 합격자가 가장 적었다. 진도는 지난

2020년도 9급 54명을 뽑으려고 했지만 4.2대 1의 경쟁률에도 합격자로 채용한 인원은 37명 뿐이었다고 지난해도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진도군 뿐 아니라 도심에서 멀고 교통여건이 불편한 다른 인구소멸지역 시·군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흥군도 올해 9급 공무원 59명을 뽑으려고 했지만 합격자는 47명에 그쳤고, 해남군도 올해 94명을 뽑으려다가 84명만 합격시켰다. 완도군도 지난해 55명을 뽑겠다며 전남도에 채용을 의뢰했지만 5.4대 1의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42명만 채용하는 데 그쳤다.

진도군측은 “도심과 수도권에서 멀다 보니 기피 지역으로 쏠려 응시율이 다른 지역에 견주어 낮기도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워라벨’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공직사회 진출 영향으로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도심에서 떨어진 시·군의 노인 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젊은층 인구는 줄어들면서 지역 소멸 속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개인 삶에 대한 존중, 자율성을 지향하는 젊은 세대의 변화 요구에 맞춰 폐쇄적 조직 문화에 대한 개선과 박봉 등 처우 개선뿐 아니라 지역에서 근무하는 걸 기피하지 않도록 주거·생활 환경 향상에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기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2034년 가구 수 정점 찍고 감소

전남은 2036년... 2050년 가구원 수 광주 1.87명·전남 2.23명

가족의 소규모화로 가구 수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가 광주는 2034년, 전남은 2036년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에는 가구주 중위연령은 전남이 70.0세로 가장 많고, 광주는 62.3세로 오른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50년 장래가구추계(시도편)’를 20일 발표했다.

통계청은 추가구 수가 2039년 2387만가구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50년에 2284만9000가구로 다소 줄어드는 그림을 그렸다.

평균 가구원 수는 2020년 2.37명에서 점차 감소해 2050년 1.91명까지 떨어든다.

같은 기간 광주는 2.37명에서 1.87명으로 줄고, 전남은 2.23명에서 1.78명으로 줄게 된다.

2050년에는 가구주 중위연령이 세중시를 제외

한 16개 시·도 모두에서 60세가 넘을 전망이다.

중위연령은 ‘평균 연령’과 달리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말한다.

2020년 57.6세였던 전남 중위연령은 2050년 70.0세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진다. 광주는 같은 기간 51.0세에서 62.3세로 늘어난다.

특히 전남 6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은 68.6%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1.2%에서 2050년 39.6%로 늘어난다. 광주는 40.3%, 전남은 42.0%로 증가한다.

2050년에는 전남 고령자 가구 비중이 60.3% 달하며, 사별가구 비중은 17.2%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규홍 복지장관 ‘대중교통 등 장소별 마스크 의무화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지적에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실내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 정책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영유아의 언어사

회성 발달 지연 우려가 큰 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결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재유행 가능성이나 국민 불편, 수용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다”고 일부 동조했다.

그는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개인 방역을 강조하며 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응한 것에 대해 “일상생활 부담을 덜 주면서도 성공적인 방역을 할 수 있다는 사례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전남도는 18일(현지시간) 독일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이자 유럽 중부의 허브 도시 프랑크푸르트 판아시아(PanAsia) 매장에서 전라남도 우수 농수산물 전문 상설판매장 유럽 2호점을 개장했다. 상설판매장에서는 장흥군 아르미쌀, 표고버섯, 다시마, 완도군 해초로 만든 국수, 김, 해초 부각, 건마생이, 고흥군 미역, 보성군 녹차 등 전남 17개 기업이 생산한 우수 농수산물 55개 제품이 입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전남 농수산물식품 전용 상설판매장 오픈

오스트리아 빈 이어 유럽 2호점

독일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이자 유럽 중부의 허브 도시 프랑크푸르트 판아시아(PanAsia) 매장에 전남 농수산물식품 전문 상설판매장 유럽 2호점이 개장했다.

개장식에는 유럽의 최대 한국음식 유통기업인 판아시아의 정종안 회장과 강찬우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영사, 은유리 한국관광공사 프랑크푸르트지사장 등 현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축하했다.

상설판매장에서는 장흥군 아르미쌀, 표고버섯, 다시마, 완도 해초로 만든 국수, 김, 해초 부각, 건마생이, 고흥 미역, 보성 녹차 등 전남 17개 기업이 생산한 우수 농수산물 55개 제품이 입점했으며, 연간 35만 달러 수출이 기대된다.

지난해 9월 오픈한 전남 상설판매장 유럽 1호점인 오스트리아 빈 매장에서는 지난 8월 말까지 30만 달러의 전남산 농수산물식품을 수출했다.

전남 상설판매장 운영기업인 판아시아는 아시

아 식품의 직수입을 통해 도·소매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유럽에서 6천여 아시아 식품점과 식당 등 현지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 식품 연간 1100만 달러를 수입하고 있다.

신현군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오스트리아 상설판매장의 성공적 진출에 이어 유럽시장 2호 매장을 독일에 개설해 '전라남도 우수 농수산물'을 홍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유럽 등 신시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차분하기 힘든 모든 부동산 교환

하실분. 010-3605-5000

지분 임야, 땅 샅샅이

맹지사절.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합계 -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터 신축 부지 적합

(주)C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2년 10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100,000,000원을 금 83,000,000원으로 감소하고,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중 보통주식 1,700주를 본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354,000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제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2.10.21.
주식회사 공영물류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5 (시평동, 로컨티움파크 1301호)
대표이사 김준홍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1차)

본 회사는 2022년 10월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당 회사의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본 회사에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주식회사 에스케이준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안길 42, 103동 701호(미장동, 코아루아파트)
청산인 김용준

산행안내

10월22일(토)

▲광주초악회 10월22일(토) (가을 특별산행_오대산 풍만단 구상열리길/고성정,꽃길관리) 오전 05시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5시 30분 롯데백화점 05시 45분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초악회 010-4621-2166, 010-6702-9796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70년

光州日報

신문구독 (062)227-9600
광고문의 (062)227-9600
예향구독 (062)220-0551